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발명의 10대 기법(3)

용도를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모든 물건에는 나름대로 주어진 용도가 있다. 사람들은 그 용도에 맞게 물건을 구입하여 정확히 그 용도에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물건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용도외에도 또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있다.

또 용도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발명에서는 용도를 바꾸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그것도 바로 발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명인으로서 초보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법중의 하나이다.

발명대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일본에는 특허관리사라는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이 시험에도 매년 출제되는 문제가 기도 하다. 즉 하나의 어떤 물건을 하나 보여 주며, 이 물건

의 용도를 되도록 많이 적어보라는 것이다.

용도를 바꾼 발명이 오죽하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다. 용도를 바꾼 발명으로 성공한 예는 수없이 많다.

일본의 매직 테이프 메이커 벨크로사는 몇년 전부터 1백만엔의 상금을 걸고 매직 테이프의 새로운 용도에 관한 아이디어를 다섯차례나 모집한바 있다.

그중에서 색다른 것은 골프공에 붙여서 그것이 과녁에 맞으면 달라 붙는다고 하는 장난감이었다. 설마 공에 붙이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당신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또 매직 테이프를 시계 밴드로 한 T씨의 실용신안은 벨크로사가 50만엔에 사 들였으며, 매직 테이프를 운동화 끈에 붙

인 M사는 큰돈을 벌었다.

또 미국의 SOS 사는 주방용 크렌자를 제조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자동차의 휠타이어를 닦는다는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어 큰돈을 벌었다. 크렌자를 주방용품이라고만 생각했다가는 이런 용도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홀라후푸가 한때 폭발액인 매출을 보이고 있었으나 들연 매출이 중지되어 버렸다.

이것은 경영자에 있어서 예측 불허의 일이었다. 잔고를 잔뜩 안고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한가지 방법은 그야말로 험값에 팔아치운다는 것. 또 한가지는 다른 용도를 찾아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후자에서 방법을 찾아내어 홀라후푸 업자들은 살길을 찾은 것이었다.

작은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활모양의 대나무 쪽 대신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홀라후푸는 대나무와 달라서 마디가 없으므로 비닐이 찢어지지

도 얇고 가격도 싸서 또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되찾았다는 실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 있는대로 다른 용도는 없을까하고 생각한 것이지만, 조금 바꾸어 다른 용도는 없을까하는 기법도 있다.

예를들면 주전자의 주둥이를 자유로이 떼어 내어서 물뿌리개 대신으로 쓸 수가 없을까하는 것이다. 조금 바꾸어서 다른 작용을 부가하면 편리한 물건, 즉 발명이 되는 것이다.

자! 잠시 쉬면서 주위를 살펴보자.

전등의 용도는 오랜동안 조명의 역할만을 해왔으나 파장을 조금 바꾸는 것에 의하여 살균램프가 되었다. 이 발명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종이의 조성을 바꾸면서 글을 써가는 초음파 펜이 제품화되어 있지만, 이것도 소리의 진동수를 2만진동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의하여 생긴 새로운 용도, 즉 발명인 것이다.

우선 우리 가정·학교·직장 등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들로부터 새로운 용도를 찾아보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발명인이 될 수 있다.

〈용도를 바꾼 발명의 최근 성공 예〉

- ▲ 사면팔방 선풍기
- ▲ 튜브형 비누
- ▲ 지압 양말
- ▲ 누수방지 수도꼭지

▲ 소프트 효과를 내는 사진 필라

▲ 타이어 발란사

▲ 볼텍스 튜브 등 다수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도 발명이다

이것은 차용법이라고도 하는데 최근들어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법중의 하나이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린다는 것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서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너무 도가 지나치면 모방이지 발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산업분야에서 남의 권리, 즉 특허를 모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남의 권리, 즉 아이디어를 빌려서 새로운 발명을 하는것은 장려하고 있다. 실용신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이라도 이를 보다 좋게 개선하면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소발명으로 성공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실용신안제도가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일본은 남의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이용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숭이 같은 X들」이라는 욕을 먹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의 일본(경제 및 발명대국)은 여기에서 비롯되

었으며, 발명왕 에디슨도 「타인이 많이 사용한 신기하고 흥미있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곧 발명의 시작」이라고 말한바 있다.

사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발명은 전 세계에서 예나 지금이나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 예를 함께 살펴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는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할 수 있는 발명이 없는지 살펴보자.

루돌프 디젤은 어느 여선생이 고안한 라이터를 기초로 하여 디젤 엔진을 발명했다. 이 라이터는 과학실 한쪽 구석에 팽개쳐 있었던 것인데, 디젤은 이것을 분석한 결과 ▲공기와 연료가 실린더속에 있고 ▲피스톤은 갑자기 실린더 내의 공기를 압축하며 ▲이것이 연료에 점화된다는 사실을 파악,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1892년 디젤 엔진을 발명할 수 있었다.

강조해 두건데 남의 아이디어를 빌린다는 것은 결코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린 발명의 최근 성공 예〉

- ▲ 조절가능한 냉각용 호스
- ▲ 액설되기 어려운 지붕
- ▲ 계단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휘일체어
- ▲ 싸이로 저장물 확출장치
- ▲ 정류판이 붙은 선반 푸로펠라 <계속>

〈編輯者 王然中 記〉